

[지상 일대일강좌] 일대일의 가장 큰 목표 '세계선교'

박종길 목사 / 2002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일대일과 큐티일 것이다. 일대일과 큐티는 온누리교회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다. 온누리교회는 개혁 초기부터 일대일 양육과 사역을 통해서 평신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갔다.

일대일이 쉬운 과정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온누리 교회는 일대일의 정신과 일대일의 희생과 어려움을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교회의 리더쉽부터 일대일 사역과 양육에 많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예수님도 한 사람씩 부르셨다

그렇다면 왜 일대일 양육이 중요한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실 때, 집단으로 부르시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부르셨다. 일대일로 만나시기를 원하셨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기드온 등, 집단적인 만남 보다는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며 개인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양육하셨다.

예수님도 그러하셨다. 제자들과의 만남이 그렇고, 수가성의 여인이나 여리고의 삭개오, 거라사의 광인도 일대일로 주님을 만났다. 그런 점에서 일대일은 단순한 성경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일대일은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대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에베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했듯이 (행 20 : 31) 일대일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귀한 방법인 것이다.

그럼, 일대일 양육의 최종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추수하는 일꾼의 배가와 세계 선교이다. 큐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일대일은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한 사람을 찾아 말씀과 삶을 나누는 것이다. 추수할 밭을 바라보시며,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양육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한 사람의 동반자를 양육하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추수하는 일꾼이 추수하는 일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대일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나눔보다 인격과 삶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추수하는 일꾼의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일대일 양육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또한 최종적으로 일대일이 지향하는 것은 세계 선교이다. 세계 선교의 비전은 온누리 교회의 비전이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선교는 우리가 취사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이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구원이 선포되는 것이다. 일대일은 세계 선교를 이루는 도구들 중에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는 도구이다. 여러 선교지마다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된 일대일 교재가 있다. 그리고 그 교재를 통한 일대일과 지도자 훈련은 이미 많은 열매들을 보고 있다. 일대일이 선교지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대일 자체가 예수님이 하신 방법이었고, 삶이 변화되는 과정 없이는 진정한 변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지에서 일대일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열매들을 경험했다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와 함께 일대일 사역자를 보내 달라는 요청은 일대일의 목표가 다시 한번 세계 선교임을 확인시켜 주는 부분이다.

일대일은 하나님이 온누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장이다. 그리고 이 축복은 이제 온누리를 넘어서 한국 교회에, 그리고 세계 선교에 나아가야 한다. '일대일로 세계로'라는 표현처럼 하나님은 세계 선교에 일대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 박종길 목사

* 출처 - 온누리신문